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 December

주간 전남농업

VOL. 214

2018년
12월 셋째주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기압골의 영향으로 20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3 ~ 2도, 최고기온 : 7 ~ 10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0 ~ 1mm)보다 많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과일류 관측정보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8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2

- ▶ 태국에 국산 생과실을 수출하려면 새로운 검역요건 충족해야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3

- ▶ 새로운 품목에 대한 농업경영 표준진단표 개발
- ▶ 벼 유전자지도 제작 기간 1/5로 줄일 기술 개발
- ▶ 감귤 신품종으로 국산 품종 시대 열다
- ▶ 녹각영지버섯, 신경세포 보호에 효과 있어
- ▶ 건조배추, 간편식 소재로 배추시장 활성화 꾀한다
- ▶ 미생물 유래 단백질로 작물 튼튼하게

6. 정책 동향 19

- ▶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 141호로 확대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0

- ▶ 광양시, 토양검정·유용미생물 공급 큰 폭 증가 농가 호응 높아
- ▶ 담양군,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농식품 판로 개척 총력
- ▶ 장흥군, 보리 월동관리 이렇게 준비하세요
- ▶ 강진군, 우수 농림축수산물 서울시 공공급식용으로 납품 시작

8. 해외 농업정보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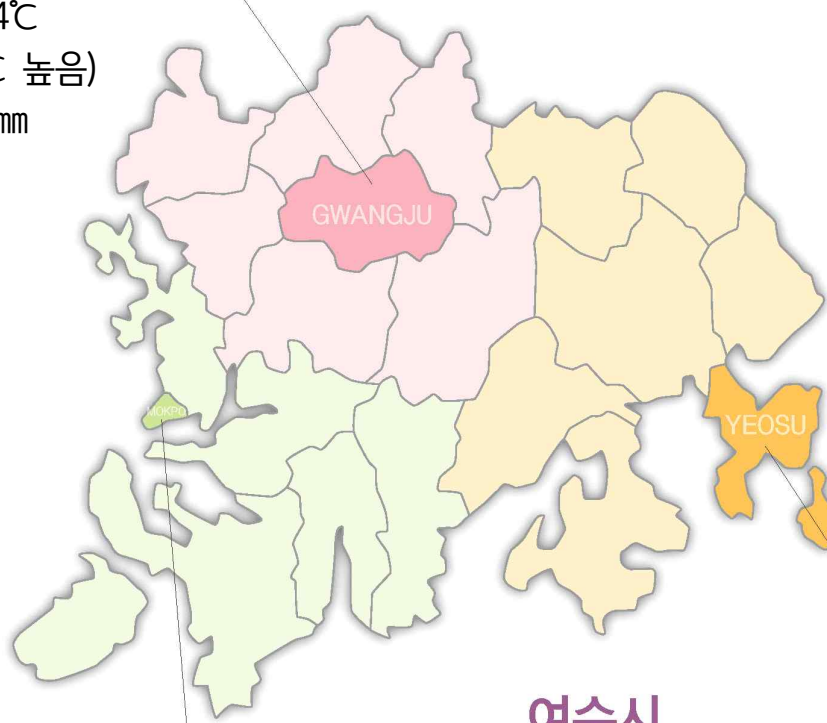
- ▶ 일본, 토마토 가격 상승세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 홍콩, 캘리포니아산 로메인 상추 판매 및 수입 전면중단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12. 17. 시카고 선물거래소)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28

- ▶ 내년 농업 설계 위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작
- ▶ 청림한세상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6℃
(평년대비 1.8℃ 높음)
- 최고기온 : 7.6℃
(평년대비 1.1℃ 높음)
- 최저기온 : -1.4℃
(평년대비 2.7℃ 높음)
- 강 수 량 : 0.9mm



목포시

- 평균기온 : 3.9℃
(평년대비 2.1℃ 높음)
- 최고기온 : 8.5℃
(평년대비 0.1℃ 높음)
- 최저기온 : 0.4℃
(평년대비 2.8℃ 높음)
- 강 수 량 : 0.7mm

여주시

- 평균기온 : 4.7℃
(평년대비 1.7℃ 높음)
- 최고기온 : 8.5℃
(평년대비 0.9℃ 높음)
- 최저기온 : 1.5℃
(평년대비 3.0℃ 높음)
- 강 수 량 : 0.4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올해 사과·배·단감 저장량 전년보다 감소



개화기 냉해 및 여름철 폭염으로 생산량이 줄어 저장량 감소

2019년 과일 재배면적 전망 (금년 대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일류 관측정보

- 내년 포도·복숭아 재배면적 증가, 사과·배·감귤·단감은 감소 전망 -

☀ 저장량 추정 : 사과·배·단감 저장량 전년 대비 감소

- 사과(후지) 저장량은 후지 생산량 및 대과 비율 감소로 전년 대비 18% 감소 추정
- 배(신고) 가격은 생산량 및 대과 비율 감소로 전년 대비 24% 감소 추정
- 단감(부유) 저장량은 생산량 감소 및 최근 저장기 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16% 감소 추정

☀ 가격 전망 : 감귤을 제외한 과일 가격 전년 대비 상승

- 사과(후지)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2만 8천 ~ 3만 1천원/10kg 전망
- 배(신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3만 9천 ~ 4만 2천원/15kg
- 감귤(노지온주)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1,700원/kg 내외 전망
- 단감(부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2만 9천 ~ 3만 2천 원 /10kg 전망

☀ 재배면적 전망 : 2019년 포도·복숭아 제외한 과일 재배면적 금년 대비 감소

- 사과 재배면적은 신규 식재 면적 감소로 금년보다 1% 감소 전망
- 배·단감 재배면적은 금년 대비 각각 1%, 2% 감소하나, 국내 육성 신품종 면적은 소폭 증가 전망
- 노지온주 재배면적은 금년 대비 1% 감소하나, 월동온주, 하우스온주, 만감류는 증가 전망
- 포도 재배면적은 샤인머스켓 등 신품종 신규 식재 면적 증가로 금년 대비 1% 증가 전망
- 복숭아 재배면적은 금년 대비 1% 증가하나, 신규 식재 감소로 유목면적 소폭 감소 전망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8. 12. 17.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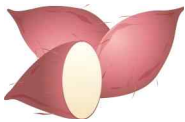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20kg	49,380	49,380	↑	26.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555	39,025	38,922	↑	26.9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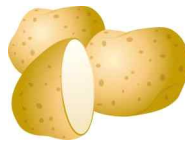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35kg	185,800	188,000	↑	1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0,050	163,000	156,867	↑	18.4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10kg	37,800	37,400	↑	34.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200	28,050	22,667	↑	66.8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20kg	47,600	45,800	↑	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6,350	46,750	26,400	↑	80.3

채소류

배추(가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10kg	6,100	6,966	↓	9.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400	6,755	5,138	↑	18.7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8kg	6,300	6,800	↑	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525	6,160	4,725	↑	33.3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100개	59,333	52,000	↑	15.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0,833	51,500	61,563	↓	3.6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20개	24,600	21,400	↑	1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4,750	21,900	23,370	↑	5.3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60kg	1,202,000	1,202,000	↓ 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72,000	1,230,000	770,667	↑ 56.0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20kg	130,000	130,0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0,000	-	-	-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20kg	9,000	9,400	↑ 12.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0,800	8,000	9,637	↓ 6.6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5kg	20,600	16,600	↓ 4.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3,500	21,550	24,767	↓ 16.8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10kg	29,800	30,600	↑ 3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4,050	22,450	26,640	↑ 11.9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10kg	31,200	30,80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450	29,150	42,233	↓ 26.1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20kg	13,400	13,400	↓ 4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125	24,350	20,933	↓ 36.0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1kg	1,780	1,820	↑ 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10	1,775	1,768	↑ 0.7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1개	15,600	14,800	↑ 6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950	9,700	13,303	↑ 17.3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5kg	26,600	23,200	↑ 53.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750	17,300	16,793	↑ 58.4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10kg	42,800	42,800	↑	27.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8,150	33,650	37,070	↑	15.5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15kg	46,800	47,200	↑	39.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750	33,600	38,193	↑	22.5

단감(단감)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2kg	32,800	32,000	↑	8.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9,100	30,350	23,929	↑	37.1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100g	8,294	8,507	↓	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093	8,365	7,343	↑	13.0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1kg	5,096	5,045	↓	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93	5,282	5,403	↓	5.7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30kg	496,800	495,400	↓	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4,800	499,000	517,767	↓	4.0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2kg	12,800	13,000	↓	5.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550	13,500	12,660	↑	1.1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2kg	8,200	7,800	↑	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025	8,050	8,110	↑	1.1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100g	1,746	1,785	↓	1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90	1,944	1,933	↓	9.7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30개	5,079	5,102	↓	1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18	5,684	5,892	↓	13.8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7)	1주일전 (12/10)	전년대비	
1L	2,621	2,621	↑	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22	2,520	2,540	↑	3.2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8. 12. 17. 기준 / 단위: 원)

한우(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813	5,750	5,534	↑ 1.1	↑ 5.0
	거세	6,194	6,565	6,099	↓ 5.7	↑ 1.6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060	3,149	2,946	↓ 2.8	↑ 3.9
	수	3,551	3,639	3,583	↓ 2.4	↓ 0.9

육우(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669	3,711	3,17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1	↑ 15.6

젖소송아지(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55	258	11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2	↑ 117.9

돼지(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36	339	37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9	↓ 9.2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758	1,529	1,09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5.0	↑ 60.4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900	886	1,19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6	↓ 24.4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433	2,433	2,64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0	↓ 8.0

태국에 국산 사과실을 수출하려면 새로운 검역요건 충족해야

- 국산 배, 사과 등 8개 품목 태국 수출검역 요건 제정·시행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신선 배, 사과, 복숭아, 포도, 감(단감 포함), 참외(멜론 포함), 감귤, 딸기 등 총 8개 품목의 對태국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규정인 『한국산 배 등 사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금년 12. 14일자로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검역본부)는 2008년 태국 측에 8개 품목의 위험분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검역요건의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태국 측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 등을 거쳐 검역요건을 제정하여 '18. 10. 27일자로 발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향후 2019년에 생산되는 배, 사과, 감귤 등 8개 품목 사과실의 태국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며, 주요 수출검역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을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며, 태국 측이 우려하는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방제 실시, 재배지검역 실시(감귤에 한함), 선과작업 후 수출검역 실시 등이다.
- 농식품부는 금번 배, 사과 등 8종의 사과실 태국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농산물의 對태국 수출 중단 우려를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 과수원(재배지) 병해충 방제조치 등 검역기관의 종합적 관리를 통해 우수 품질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새로운 품목에 대한 농업경영 표준진단표 개발

- 칼랑코에, 갈색거저리 등 12종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새로 도입된 품목이나 소면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영진단을 위해 올해 새로운 품목에 대한 농업경영 표준진단표(이하 진단표) 12종을 개발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생산 기술 및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존 84종의 진단표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12종을 추가로 개발하면서 화훼, 식용곤충, 약초 등 보다 체계적인 경영 진단과 객관적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이번에 개발된 진단표 중에는 미래 유망식품으로 주목받는 식용곤충(갈색거저리)에 대한 진단표도 포함되어 있다.
- 새로운 12종의 진단표는 농촌진흥청과 3개 도 농업기술원(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이 함께 개발했습니다.
- 개발된 농업 경영 표준진단표는 이달 17일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시스템 (<http://amis.rda.go.kr>)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또한, 농업경영 상담을 원하는 농업인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하면 진단표를 활용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칼랑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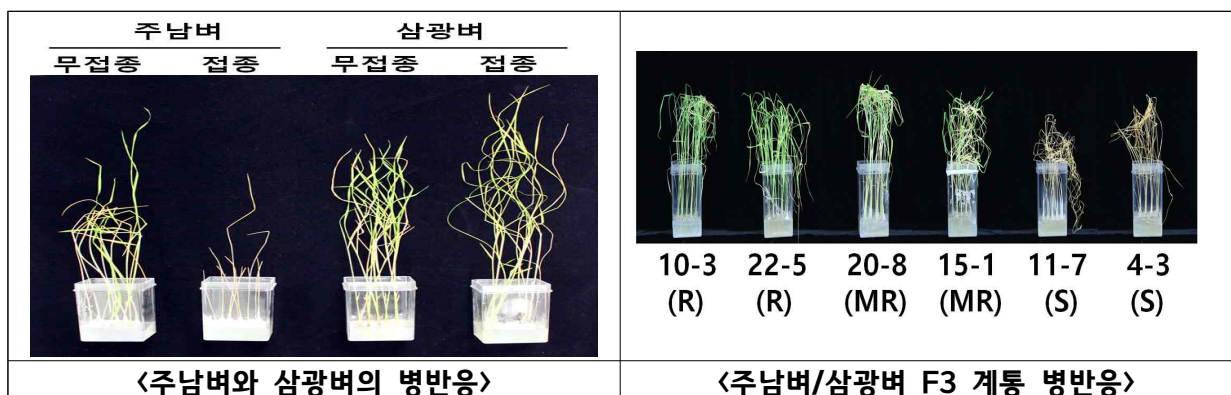
〈갈색거저리(고소애)〉

☀ 벼 유전자지도 제작 기간 1/5로 줄일 기술 개발

- 벼 고속대량 유전자형 분석용 마커세트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벼 유전자지도 제작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분자마커세트를 개발했습니다.
- 작물의 특정형질의 유전을 연구하고 활용하려면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나타내는 인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자마커는 특정 유전체 서열, 위치를 지시할 수 있는 DNA 변이를 분석해 만든 것으로 유전자지도 작성에 이용됩니다.
- 벼 유전자지도 제작에는 보통 150 ~ 300개 정도의 분자마커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한 번에 96개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마커를 주로 사용해 유전자지도 작성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됐습니다.
- 이번에 개발된 마커세트는 KASP마커의 일종으로 400개의 마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광벼, 주남벼, 오대벼 등 13개 국내 주요 품종의 유전체 정보로 발굴한 단일염기서열변이(SNP)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 이 마커세트는 하루 15만 점의 분석이 가능한 고속대량 분석용 장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커형 분석에는 2일, 분석 결과 확인까지는 3주, 유전자지도 제작까지는 1개월이 걸려 기존 방법에 비해 약 1/5로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 이 마커세트를 주남벼/남평벼, 주남벼/삼광벼 분리 집단의 유전자지도를 제작하고 병 저항성 유전자 탐색한 결과, 벼 키다리병 저항성 후보 유전자의 위치를 밝히는데 성공해 마커 활용성이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 마커세트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한국육종학회에서 발간하는 영문판 학술지 Plant Breeding & Biotechnology 12월호에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허출원도 마쳤습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감귤 신품종으로 국산 품종 시대 열다

- 윈터프린스·미니향 등 경쟁력 갖춘 감귤 품종 본격 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외국품종에 의존하던 감귤 품종을 우리 품종으로 바꾸고자 노력한 결과, 윈터프린스를 필두로 미니향, 하레조생 등 감귤의 국산품종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 11월 하순부터 수확되는 윈터프린스는 연말 감귤 수요를 고려해 만든 품종으로 내년부터 농가로 묘목이 본격 보급됩니다. 당도는 12°Brix 내외로 달콤하고 과즙이 많으며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껍질 벗기기가 쉬워 먹기 편하고 또 기존 품종과 다른 달콤함에서 오는 풍미를 느낄 수 있어 앞으로 매우 유망한 품종입니다.
- 11월 중순부터 수확하는 미니향은 크기가 30~40g 정도로 현재 재배되고 있는 감귤 품종(노지감귤 평균 80g, 만감류 250g) 중 가장 작은 편에 속합니다.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작은 과일로 당도는 15°Brix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관상용으로도 가치가 있어 따먹는 관상용 감귤이라는 컨셉으로 이용 분야가 확대될 수 있는 품종입니다.
- 11월 중순에 수확하는 하레조생은 노지감귤의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맛이 적고 당도(10.7°Brix)가 높아 일찍 출하가 가능해 농가에서 인기를 끌며 최근 묘목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경쟁력 있는 품종을 개발해 농가 현장으로 묘목 보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기대되는 품종으로는 농촌진흥청과 골든씨드프로젝트(GSP) 사업단이 공동으로 육성한 노을향 품종이 있습니다. 이 품종은 1차 농가실증 결과 11월 중·하순 노지재배에서 당도 12°Brix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노지재배에서 12°Brix 이상이 나오기 위해선 고비용의 재배법이 필요하나 노을향은 시설이나 농자재의 추가 비용 없이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농가실증 후 2020년부터 보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녹각영지버섯, 신경세포 보호에 효과 있어**

- 세포실험 결과, 항산화 활성 뛰어나고 활성산소 40%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녹각영지버섯이 항산화 활성이 우수해 몸 속 유해산소인 활성산소를 없애고 신경세포 보호에 효과적임을 세포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 녹각영지버섯은 사슴뿔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기능성분은 영지버섯과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 녹각영지버섯영지버섯은 성인병 예방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 불로초로 불리는데 일반적인 영지버섯은 심장 모양의 편각형입니다.
- 편각영지버섯은 원목 재배를 하지만, 톱밥 병 재배를 하는 녹각영지버섯은 재배 기간이 짧고 한 해에 여러 번 재배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모양으로 자라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좋습니다.
- 실험은 녹각영지버섯 자실체를 70% 주정으로 추출한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양성대조구인 비타민C의 1/5 정도로 녹각영지버섯의 항산화 활성은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 또한 쥐 신경세포주에 과산화수소를 처리해 활성산소(유해산소, ROS)를 생성하고, 녹각영지버섯 추출물을 처리한 후 신경세포주의 활성산소 억제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과산화수소 처리로 5배 가량 늘어난 활성산소가 녹각영지버섯 추출물에 의해 40% 줄어듦을 확인했습니다.
- 신경조직에 활성산소가 쌓이면 산화 스트레스가 나타나는데, 이는 기억력 감퇴와 알츠하이머병 등의 신경퇴행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녹각영지버섯 추출물의 활성산소 감소 효과는 신경세포 보호에도 효과적임을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 이번 연구는 올해 버섯 관련 전문 학술지인 한국버섯학회지 9월호에 실렸습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건조배추, 간편식 소재로 배추시장 활성화 꾀한다

- 맛과 영양 그대로, 저장성·편리성 내세워 틈새시장 공략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간편식 소재로 건조배추를 활용해 생산과 수급의 불안정성을 낮추고 소비 시장은 넓혀감으로써 배추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 건조배추는 40℃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배추 전체를 말린 것으로, 소금에 절일 필요가 없는 건강한 간편 식품 소재입니다.
- 끓인 물에 20 ~ 30분 담가두면 원래의 색과 아삭하고 쫄깃한 식감이 되살아난다는 점에서 시래기나 우거지와는 구별됩니다. 건조배추의 영양 성분도 신선배추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 가볍고 부피가 작아 운송도 편리하며, 향과 맛, 조직감 등 식미 평가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즉석김치나 된장국, 각종 무침과 전, 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건조용 배추 재배법과 건조 방법을 특허출원하고 가공업체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 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수분 증발이 잘 되도록 초음파와 마이크로웨이브, 40℃ 정도의 송풍으로 말리면 갈색으로 변하지 않고 빠르게 잘 건조할 수 있었습니다.
- 건조용 배추는 10×10cm 간격으로 모종을 좁게 심고, 일반 재배보다 10일 가량 앞당겨 수확합니다. 수확하기 2주 전부터 35% 빛가림 재배를 하면 건조 시간도 줄고, 물에 담가 불린 뒤에도 좋은 식감이 유지됩니다.
- 이와는 별도로 배추의 유용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재배 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 했으며, 산업화를 촉진하고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 농협에 기술이전을 진행 중입니다.
- 현재 배추를 제외한 무나 고사리 같은 건조채소류는 약 14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건조배추의 활용도를 넓혀 새로운 소비 시장이 형성되면 건조채소류 시장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미생물 유래 단백질로 작물 튼튼하게

- 작물 생육 증진 신규 단백질 세계 최초 구명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대구가톨릭대학교와 함께 미생물에서 작물이 잘 자라도록 돕고 건조 내성을 유도하는 신규 단백질을 분리하고 그 기능을 세계 최초로 구명했습니다.
- 이 신규 단백질 YxaL은 작물의 주요 병원균을 길항하고 생육을 돕는 복합기능 세균 바실러스 벨레젠시스(*Bacillus velezensis*) GH1-13에서 분리한 것입니다.
- 이 단백질은 작물의 생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 오옥신과 에틸렌, 앱시스산의 합성 유전자들과 상호작용해 식물 곁뿌리를 발달시키고 건조 내성을 유도해 생육을 돕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 신규 단백질 1ppm 농도의 수용액에 고추 종자를 2시간 동안 1회 담갔다가 파종해 재배한 결과, 작물의 생체중은 26% 늘고 건조 피해는 5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구명한 신규 단백질에 대해 대량 생산 방법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마쳤으며, 실용화될 수 있도록 2019년에 국제특허 출원과 산업체 기술 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고추 유묘의 생육증진〉



〈고추 유묘의 건조 피해 저감〉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 141호로 확대

- 전남도, 올해 가축 생태 적합한 환경 조성 81호 추가 지정 -

- 전라남도는 가축 생태에 적합한 사육 환경을 조성,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을 141호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축종별로는 한우 69호, 젖소 6호, 돼지 16호, 닭 33호, 오리 7호, 흑염소 10호다.
- 올해 추가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지정받은 농가는 81호다. 이는 102호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데 따른 것이다. 축종별로는 한우 49호, 젖소 1호, 돼지 11호, 산란계 2호, 육계 9호, 오리 4호, 흑염소 5호다.
- 시군별로는 해남 12호, 무안·함평 각 8호, 장성 7호, 진도·신안 각 6호, 강진·영광 각 5호, 담양 4호, 나주·보성·화순 각 3호, 순천·고흥·장흥·완도 각 2호, 여수·광양·곡성 각 1호다.
-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 지정 심사는 서류 심사와 현장심사 2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현장심사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농가에 대해 실시한다. 현장심사는 도와 시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해 가축 사육밀도, 가축 운동장 확보 여부, 축사 청결 상태 등 22개 항목을 평가한다. 합계 200점 중 1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이다.
- 지정된 농가에는 농장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당 운영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각종 축산정책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 자격도 주어진다.

*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 토양검정·유용미생물 공급 큰 폭 증가 농가 호응 높아

- 과학영농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기여 -

- 광양시는 토양검정, 유용미생물 공급 서비스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 시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과학영농시설인 종합검정실과 미생물생산시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 종합검정실에서는 올해 분석 계획량인 3,100점을 초과한 3,726점을 분석했으며, 지역의 토양 전체를 분석해 농업인에게 맞춤형 토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또 토양검정을 통한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토양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화학비료를 선정하는 등 토양환경의 보전과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 아울러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무료 토양현장진단을 실시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있다.
- 미생물생산시설에서는 현재 고초균 19톤, 광합성균 16톤, 유산균 14톤 등 49톤의 유용미생물을 생산해 공급했으며, 올해 말까지 전년 45톤 대비 13%가 증가한 51톤의 미생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 미생물을 공급받는 농가에서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 농업환경개선 등의 큰 효과를 내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토양검정과 유용미생물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나 기술보급과 미생물배양실(☎061 - 797 - 3560)로 연락해 방문하면 개인당 연간 200L까지 무상(초과 시 유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출처 : 광양시

담양군,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농식품 판로 개척 총력

- (주)공영쇼핑 상품개발자(MD) 초청 입점 설명회 및 품평회 개최 -

- 담양군은 12일 담양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지역 농특산물 생산업체와 (주)공영쇼핑 상품개발자(MD) 등이 참여한 가운데 TV홈쇼핑 입점 설명회와 품평회를 진행했다.
- (주)참사랑F&B, 담양농협, 안복자한과, 담양한과, 고려전통식품, 오엠오, 고재구쌀엿, 해드림식품 등 담양을 대표하는 20여 업체, 100여 가지의 품목의 생산, 품질, 위생, 포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품평회와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입점 설명회를 진행했다.
- 이날 품평회를 통해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내년 공영쇼핑에서 11%의 수수료로 TV홈쇼핑 판매방송을 시작하며, 참석한 모든 업체가 공영쇼핑 온라인 물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번 품평회를 통해 우리군 우수 농식품 이미지 제고와 판매처 확대에 기업체의 매출 확보는 물론, 기업과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우리군 농식품의 유통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6차 산업을 연계한 전략적 마케팅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담양의 농특산물이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담양군



장흥군, 보리 월동관리 이렇게 준비하세요

- 기상청의 전망에 따르면 올 겨울 기온은 강력한 한파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농작물의 동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벼 수확이 끝난 논에 씨앗을 뿌려 겨울을 나는 작물인 보리, 밀, 사료작물 등은 습해에 약한 작물로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면 월동 기간에 서릿발에 의해 얼어 죽거나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 따라서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하고 12월 상·중순과 2월 하순경에 밟아 주기를 통해 추위에 대비하여야 한다.
- 파종이 늦어 식물이 어릴 경우 벼짚, 퇴비, 왕겨 등을 10a당 1,000kg 가량 덮어주어 보온과 수분을 유지시켜 동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출처 : 장흥군



강진군, 우수 농림축수산물 서울시 공공급식용으로 납품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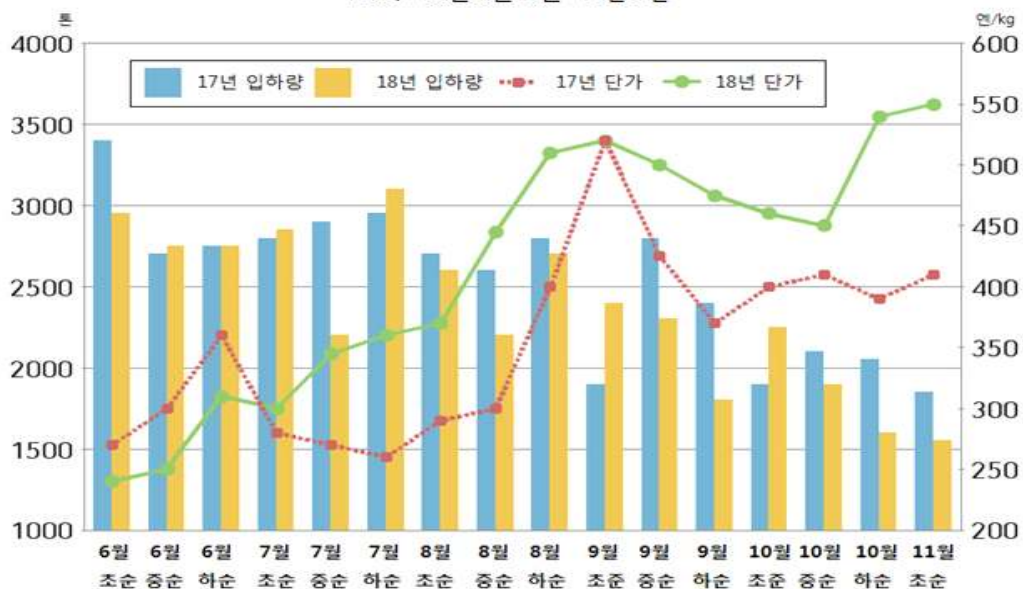
- 강진군이 지난 11월 19일 서울시 동작구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MOU를 체결한 이후, 지난 3일부터 강진군의 쌀, 축산물을 동작구에 첫 급식 식자재로 납품하기 시작했다.
- 도농상생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도농 자치구와의 1:1 매칭 및 MOU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먹거리 모델로, 기존 5~7 단계에 달했던 복잡한 유통구조를 산지와 직거래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 납품대상은 동작구에서 신청을 받은 동작구 내의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으로 올해는 약 70개의 시설에 강진군의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급식지원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 전했다.
- 강진군은 이번 공공급식 납품사업과 더불어 로컬푸드를 활성화해 학교급식 식자재에도 강진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 또, 서울시 동작구에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100% 국내산 콩을 이용하여 된장 명인이 제조한 우수한 강진산 전통장류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NON - GMO 식품에 앞장서 안전한 먹거리를 급식 식재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강진군은 그간 공공급식 식재료 납품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위해 강진농협과 연계하여 맞춤형 비닐하우스 사업, DSC 시설 및 공공급식 센터 등의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출처 : 강진군

일본, 토마토 가격 상승세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일본의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11월 상순까지 토마토 입하량은 전년대비 92%(약 37,000톤), 평균가격은 1kg 당 400엔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6.3%로 예년에 없는 고가격을 보이고 있다.
- 입하량 감소와 평균 가격 상승의 원인은 일본 토마토의 주요 산지인 홋카이도와 동북지역이 올해 날씨가 좋지 않았던 탓으로 보인다.
- 홋카이도는 6월 후반부터 7월 초순에 걸친 흐린 날씨와 강우가 계속되어 7월 중순부터 9월에 수확량이 급감했다.
- 또 다른 산지인 동북지역은 예년에 없는 이상 고온이 1주일 이상 계속되어 토마토의 원래 출하 시기보다 일찍 출하되었으며, 또한 토마토 나무가 말라 죽어 버린 경우도 발생했다.

〈도쿄도 중앙도매시장·토마토 순별(旬別) 입하량·단가추이〉
2017·18년 6월 초순~11월 초순



*이미지 출처 : 일본 농업신문 특집 (2018.12.05.)

- 한 농업 전문가에 따르면, 여름동안 이상 고온이 길어지게 되면 토마토가 수분(受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고품질의 토마토를 매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백화점에 납품하는 바이어에 따르면, 전체 토마토 입하량은 줄어들었으나, 홋카이도 중에서도 악천후를 극복한 지역으로부터 고품질의 토마토가 예년처럼 입하되어서, 납품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상반된 의견도 존재했다.
- 일본의 신선토마토 수입량은 2017년 (1 ~ 12월) 7,690톤, 2018년 (1 ~ 10월 현재) 7,240톤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입량 중 한국산 토마토는 53%의 점유율 보이고 있다. 한국의 신선토마토 수출의 97%는 일본으로 수출되며 2014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국가별 토마토 수입량〉

구분	2017년 1~12월 수입량(t)	2018년 1~10월 수입량(t)	점유율(%)
토마토 전체 수입량	7,690	7,240	100%
대한민국	4,082	3,837	53%
네덜란드	475	480	6%
캐나다	925	929	12%
미국	554	649	8%
멕시코	592	680	9%
뉴질랜드	1,062	665	12%

* 출처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HS코드 0702.00-000

- 일본 시즈오카현 농림 기술 연구소는 최근 부상 중인 인공지능(AI)의 힘을 빌려 고당도의 토마토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보급 중이다. 고당도의 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관수(灌水)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줄기와 잎의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수분과 영양액을 공급해 왔다.
- 관수 관리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게 학습시켜, 사람이 판별할 수 없는 경미한 줄기의 변화로도 토마토의 생육상태를 판별하여 관수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평균 당도는 올랐으며, 여름 출하시까지 안정적으로 당도 유지가 된다고 한다.
- 또한, 일본의 종묘 회사들은 잎이 크고 뿌리가 튼튼하며, 일본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에 힘쓰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홍콩, 캘리포니아산 로메인 상추 판매 및 수입 전면중단

- 홍콩은 미국 식품안전 조사관이 최근 미국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장균 발생의 원천인 것으로 밝혀진 캘리포니아산 수확한 로메인 상추의 판매 및 수입을 중단했다.
- 11월 말 발표된 성명서에서 홍콩의 식품안전센터는 캘리포니아에서 수확한 로메인 상추의 수입과 판매가 전면 중지되었다고 말했다.
-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수확된 로메인 상추를 판매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캘리포니아산이나 원산지가 불명확한 상추를 되도록 섭취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 식품안전센터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 로메인 상추와 관련한 대장균 감염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안을 주시해 왔으며, 홍콩으로 수입되는 로메인 상추 또한 검사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 미국 식약청 (FDA)에서 조사한 최신 정보에 따르면 대장균 감염의 확산은 캘리포니아에서 수확된 로메인 상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식품안전센터는 해당 지역에서 수확한 로메인 상추의 홍콩 내 수입 및 판매를 즉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FDA는 특정 재배자 또는 유통업체를 밝히기에는 아직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북미 지역에서 로메인 상추와 관련된 대장균의 발병으로 지난 12월 미국 전역의 12개 주에서 적어도 43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FDA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22명이 감염되었다.
- 홍콩에서는 지난 주 식품안전센터에서 일반인들에게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확된 로메인 상추를 먹지 말 것을 당부했고, 샘플 테스트를 위해 양국에서 수입 된 로메인 상추를 모두 금지했다. 시험 결과에 따라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출시된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12. 17.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 이익 실현 거래로 인해 하락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1%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이익 실현 거래로 하락했다. 미 농무부가 밀 주간 수출 실적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 가격 상승과 밀 수출 호조세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러시아는 2018년 밀 수확량이 7,000만 톤이라고 전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1%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 수출 수요 개선과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면서 옥수수도 포함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 미 농무부는 미간 수출업체가 일본으로 12만 5,000톤의 옥수수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7%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중국이 예상보다 대두를 적게 구매하면서 2세션 연속 하락했다. 미 농무부는 중국의 113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입했다는 지난 발표에 이어, 민간 수출업체가 미국산 대두 30만 톤을 중국에 판매했고 알려지지 않은 행선지에 13만 톤을 추가로 판매했다고 전했다. 무역전쟁 이후 처음으로 상당한 규모의 대두가 판매되었으나 시장의 기대치는 수백만 톤이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내년 농업 설계 위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작

- 이달부터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서 진행 중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의 품목별 농업인과 농업인 조직, 귀농·귀촌한 젊은 농업인, 영농법인 관계자 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올해 영농의 어려움 등을 짚어보며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편리성과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영농기술을 교육하고, 농업정책을 알기 쉽게 전달해 농업인이 이듬해 영농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 교육은 1969년 겨울영농교육으로 시작해 1980년대까지는 식량증산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지역에 맞는 소득 작목 보급과 농촌자원의 다양한 활용방안 등 교육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의 종합적인 교육계획은 농촌진흥청이 세우고, 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별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강화되는 농약허용기준(PLS)에 대해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농촌정책, 농업경영, 스마트팜, 작목별 신기술 등을 교육합니다. 강화되는 농약허용기준(PLS)에 관한 교육은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올바른 사용 방법을 영상, 그림 등으로 소개하고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 또한 농촌정책에 관한 내용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 인구 유입 정책, 농촌다움의 보존 및 증진 등을 소개합니다.
-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일정과 교육과정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청렴한세상 - 청문으로 나아간 관리 청백리 조사수 선생일화



중종때 임금의 조정 신하를 모두 모아 청백리를 뽑는 행사를 몸소 거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중종은 마당에 문 셋을 세우고 각각 문마다 이름을 써 놓았는데 청문은 깨끗한 문이고, 예문은 보통의 문, 탁문은 더러운 것을 했던 관리가 지나가는 문으로 정했다고 하지요.

임금은 물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이 청문을 지날 용기도 없었지만 아무리 더럽기로 탁문을 드러내 놓고 지날 수도 없기에 모두가 그저 보통문인 예문을 통과 ~!!

그러나 단 한명만은 망설이지 않고 당당히 청문을 통과~!! 말많은 조정신하중에 아무도 의의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니 그가 바로 살아있는 청백리인 송강 조사수 선생이었습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VOL. 214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